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서

주체 110(2021)년 1월 10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전당을 대표하고 령도하는 당의 수반이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당의 수반은 전당의 조직적의사를 체현한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이다. 당의 수반을 정확히 선거하는것은 혁명위업의 계승기와 새로운 발전기에 더욱 중요하고 사활적인 요인으로 나선다.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가장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사명을 걸머진 당의 수반은 전당을 현명하게 령도할수 있는 특출한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있어야 한다. 본 대회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정중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품모를 지니시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존엄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건설사상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세부적으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당을 명실공히 혁명의 강력한 정치적참모부, 정예화된 강철의 전위대로,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민족사상 가장 특기할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실천강령들과 전략전술적지침들이 풍부히 마련되고 주체조선의 제일국력인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다져졌으며 혁명의 계승자대모가 튼튼히 준비되고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인민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게 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령활한 군령도로 공화국무력을 불패의 혁명적당군, 최정예강군으로 비상히 강화하시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우리 국가방위력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넘볼수 없게 자위의 강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강화하시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김정은동지의 업적은

민족만대를 두고 길이 칭송할 만고절세의 애국공적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인민경제의 자립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고 조국땅우에 자력자강의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시대를 펼쳐시였다. 인민을 위한 고생, 인민을 위한 창조를 더없는 락으로, 혁명하는 멋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김정은동지의 헌신적인 령도의 길에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생명안전을 위한 가장 우월한 시책들이 복원되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별천지들이 솟아났다. 혁명의 종하를 다 걸머지시고 조국과 민족앞에 만고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고도 그 모든 성과를 인민들에게 돌리시며 위대한 인민, 고마운 인민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모두가 심장으로 우러러따르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혁명의 대성인이다.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외교지략과 령활한 대외활동으로 자주와 정의, 평화를 수호하시며 세계정치흐름을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주도해나가고계신다. 주체혁명의 유일무이한 계승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는것은 시대와 력사의 엄숙한 요구이고 전체 당원들의 총의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전체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소원을 반영하여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것을 결정한다. 전당의 당조직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위대한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당 제8차대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5일부터 7일까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었다.

총결기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엄정히 총화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전진방향을 뚜렷이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의와 혁명적기세가 비상히 격양되는 가운데 대회는 자기 사업을 계속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총결기간의 사업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앞으로의 전진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믿음직한 발판으로 삼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총결기간 당재정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라난 결함과 교훈들이 실속있게 분석총화되었으며 당재정관리원칙과 규범에 맞게 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적극 담보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이 제기되었다.

대회에서는 토론에 이어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당재정규를 더욱 강화하여 재정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대회는 당규약개정안이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는데서 중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셋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적전진을 이룩하려는 전체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소원을 반영하여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사상 리론적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으로 미증유의 거창한 변혁과 기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현시대의 가장 결출한 정치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이고 더없는 대경사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승리의 결정적담보를 마련하고 창창한 전도를 기약하는 거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 선거가 끝난 다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가 1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지도 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수위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중앙 검사위원회선거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당중앙 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을 임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당안에 새로운 규률감독체계를 내올데 대한 의제를 중요하게 연구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부문별협의회가 1월 11일에 진행되었다.

각 부문별협의회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정서초안연구에 들어 갔다.

협의회들에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전진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달성하여야 할 앞으로 5년간의

투쟁목표와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속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상정된 의정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1월 12일 폐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 제8차대회와 관련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 령력사에서 여덟번째로 열린 본 대회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당면투쟁계획과 당의 강화 발전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상정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체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이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최고령도직책을 또다시 맡겨준데 대하여 최대의 영광으로 받아 안으면서도 송구스러움과 무거운 마음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을 대표하고 책임진다는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며 위대한 우리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부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걸사

분투할것을 엄숙히 선언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결론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로써 강령적인 결론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 할데 대하여》를 전원찬성으로 엄숙히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폐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높은 전투력과 단결력,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견인불발의 노력에 의하여 대회가 제시한 투쟁전략과 방침들이 빛나게 관철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리라

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폐회를 선언하시었다.

《인terna소날》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대회가 끝나자 전체 참가자들은 존엄높은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뭉개어넘치는 충성의 맹세와 역척의 의지를 담아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회 전 기간 전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수천만 인민들의 기대어린 마음과 시선을 항상 자각하면서 당앞에 나선 무거운 책임을 함께 떠안고 대회사업의 성과를 위해 혼심을 바쳐온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전투적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을 이룬 정치적사변으로, 혁명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한 투쟁과 전진의 대회로 조선로동당과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본시기자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원수님께서 제 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선거된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1월 12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정치적사변으로 되는 당 제8차대회에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의 중임을 받아 안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참가자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진함을 모르는 필승의 힘과 투쟁의지를 안겨주시고 신념의 역센 기둥을 세워주시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 결정을 인민앞에 다진 엄숙한 서약, 인민이 주는 지상의 명령으로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당과 조국,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불같은 결심을 다지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대회 대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1월 13일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공연장소는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존엄높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며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모신 무한한 영광과 긍지속에 사회주의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진군길에 오르게 된 참가자들의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관록있는 증요예술단체들을 비롯하여 군대와 사회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창작가, 예술인, 체육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공연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서곡 기악과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의 제1부 《당은 우리 향도자》의 무대에는 력사적인 당대회를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 부강조국 건설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며 주체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즐기치게

이끌어온 위대한 당을 우러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심장으로 터쳐 부른 명곡들이 울렸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린 60여년 전 준엄한 해에 시대를 진감시켰던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관현악과 노래로 울려 퍼지자 장내에는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적당과 국가, 무력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의 정이 뜨겁게 차넘쳤다.

당의 령도 따라 세기를 주름잡는 천리마대진군으로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전면적건설의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당대회들을 빛나게 장식한 긍지높은 추억을 불러주는 남성8중창과 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금관합주와 남성합창 《천리마 달린다》가 련이어 울려 퍼졌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의 힘찬 보폭과 더불어 승승장구하여온 투쟁행로를 격정속에 되새기며 관람자들은 혁명의 매 시기마다 수백만 당원들의 가슴에 기적창조의 불을 지퍼주시고 조선인민을 자력갱생의 강자로, 백절불굴의 영웅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조선로동당이 펼친 통성변영의 시대를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는 무반주합창 《벼가울하러 갈 때》와 그림자무용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련무 《대홍단 삼천리》, 《모란봉》, 《장고춤》은 관람자들에게 풍만한 정서와 끝없는 희열을 안겨주며 공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었다.

집단체조 《행복의 래일》, 《사회주의 지기세》로 마감한 제1부공연은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떨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당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꽃피우며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나는 소년단원들의 담찬 기상이 맥동치는 아동합창 《소년단행진곡》과 축하시 《어머니 우리 당을 노래해요》가 공연의 제2부 《영원히 우리 당 따라》의 첫 무대를 인상깊게 장식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들의 모습과 더불어 무궁창창한 주체혁명의 밝은 래일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속에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맞으며 로동당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회주의의 영원한 주체가로 태어난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아동합창과 혼성대합창으로 울리며 장내를 격동시켰다.

출연자들은 주체의 당기따라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로 빛내여가는 천만의 가슴마다에 뚫어넘치는 충성의 한마음을 숭엄한 음악서사

시로 형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드리는 전인민적송가인 남성3중창과 합창 《당에 드리는 송가》에서 출연자들은 전대미문의 준엄한 격난속에서도 조국과 인민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대화원을 펼치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조선로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어머니》, 《어머니생각》, 《당이어 나의 어머니시여》를 비롯한 참가들은 다심한 손길로 이 땅의 천만자식을 어엿이 키워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와 오직 조선로동당만을 믿고 따를 절절한 열망을 분출시킨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보여주는 라프쉴 《사회주의전진가》, 피아노 2중주와 관현악과 합창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등의 종목들은 관중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백두의 붉은기, 향도의 당기를 승리의 기치로 영원히 휘날려갈 강렬한 의지를 반영한 관현악과 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강철로 다져진 일심단결이 있는 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와 과업들은 반드시 실현되고 사회주의위업은 승승장구할것이라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겨준 공연은 종국 관현악과 합창과 무용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주체예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며 성악과 기악, 무용과 집단체조가 우리 식의 3차원대매체, 특색있는 조명, 수직배경대와 립체적으로 조화되어 장중하면서도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친 대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또 다시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적인 환호에 뜨겁게 답례하시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인 출연자들의 공연성공에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당 제8차대회를 뜻깊게 경축한 대공연은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불같은 충성과 헌신으로 당대회결정관철에 일심전력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겨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기개를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 제8차대회 대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월 14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당 제8차대회가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게 된 대표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다.

대표자들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실천강령을 받아안은 당대회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대표자들은 당 제8차대회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확신성있게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과 전진의 대회로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면서 영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무한히 충성하려는 드높은 열정과 각오로 총만된 대표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표자들이 주체의 붉은 당기를 더욱 역세게 추켜들고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도전과 장애를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정신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며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핵심, 시대의 선구자로서

의 혁명적본분을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대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 제8차대회가 펼친 설계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길 굳은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식에 참석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기념 열병식이 1월 14일 저녁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존엄높은 조선로동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를 안고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진군을 최정예당군의 열병식으로 시작하게 될 1월의 열병광장은 황홀한 불야경을 펼치고있었다.

열병식주악을 울리게 될 국무위원회연주단,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특색있게 꾸려진 광장연주석에 자리잡았다.

혁명의 붉은 총대를 역세게 틀어쥐고 당 제8차대회를 믿음직하게 보위한 공지와 영예를 안고 열병종대들이 위풍당당히 입장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더치는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의 합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경의의 축포가 터져올라 1월의 밤하늘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들어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와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노래 《빛나는 조국》이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김정관국방상이 연설하였다.

이어 국기계양식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호위대가 《우리의 국기》의 장중한 선율에 발맞추어 열병광장으로 엄숙히 입장하였다.

애국가가 울리는 속에 강대한 힘을 지닌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기상,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가는 인민의 리상과 포부, 열정과 확신을 안고 오각별찬란한 람홍색 공화국기가 서서히 계양되었다.



하늘조병들이 장쾌한 열병 비행을 개시하였다.

장갑차총대를 선두로 한 기계화총대들의 열병행진이 시작되었다.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최신행전 솔로켓트총대들이 공화국기를 나뭇기며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주력탱크총대가 전진해나갔다.

어떤 적이든 우리의 령도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미더운 우리의 로켓총대들이 우렁찬 동음으로 지심을 흔들었다.

세계를 압도하는 군사기술적강세를 확고히 틀어쥔 혁명강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수중전력단도, 세계최강의 병기가 광장으로 려어들어 들어섰다.

당 제7차대회에서 당 제8차대회으로 질풍천력사의 그 짧은 5년간 5천년 민족사의 숙원인 부국강병의 대업을 이룬 우리 당의 무진막강한 힘이 과시되는 격동의 순간 광장에는 열광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관중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희생적인

환희로운 1월의 하늘가에 거세차게 나뭇기게 우리르며 전체 참가자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 리병철원수가 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리었다.

강대한 공화국무력의 위상을 한껏 돋구며 힘찬 행진곡이 울려퍼지는 속에 총참모장 박정천원수가 탄 지휘차를 선두로 열병식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령장의 백두산군마행군길에 나래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성의 진군길, 신년의 행군길을 즐기차게 이어갈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를 안고 명예기병총대가 호기차게 달려나갔다.

인민군대의 만아들군단, 일당백고향부대로 자랑높은 제1군단, 제2군단총대가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이어 조국의 서남관문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제4군단총대, 인민군대의 중추군단인 제5군단총대도 자랑찬 군공으로 빛나는 군기를 나뭇기며 씩씩하게 전진

해갔다.

당중앙이 그어준 돌격침로로만 질풍천 내달리는 바다의 결사대, 조국의 령공을 지켜선 하늘의 방패가 될 열의에 넘쳐있는 해군총대, 항공 및 반항공군총대가 힘찬 보폭을 내짚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적대세력들이 전물하는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인 전략군총대에 관중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었다.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대담무쌍한 공격방식과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지상저격병, 해상저격병, 공중저격병, 경보병총대마다에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무적의 슬기와 용맹을 키운 일당백혁명강군의 필승의 기상이 나래쳤다.

수도 평양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고사포병군단, 제91군단, 제3군단총대와 조국의 해안과 국경관문을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군단총대들의 발구름소리도 드높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국가

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장병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시었다.

그 어떤 현대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된 혁명무력의 위용떨치며 땅크부대총대, 기계화보병사단총대들이 열병식장을 힘차게 누벼나갔다.

만능의 싸움군, 맹호부대인 산악보병총대와 최고사령부의 눈과 귀인 정찰병총대에 이어 전자교란작전부대총대를 비롯한 전문병총대들, 사회안전무장기동부대총대가 경쾌하고 박력있는 혁명군악에 맞추어 영웅한 기개떨치며 나아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과 마음도 숨결도 보폭도 맞추며 나아가는 릉름한 열병대오들에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다.

탁월한 령도와 빛나는 예지로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보다 밝은 미래를 펼쳐준 위대한 당중앙에 경례를 드리며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시어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강대한 나라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갈수 있는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가운데 축포가 터져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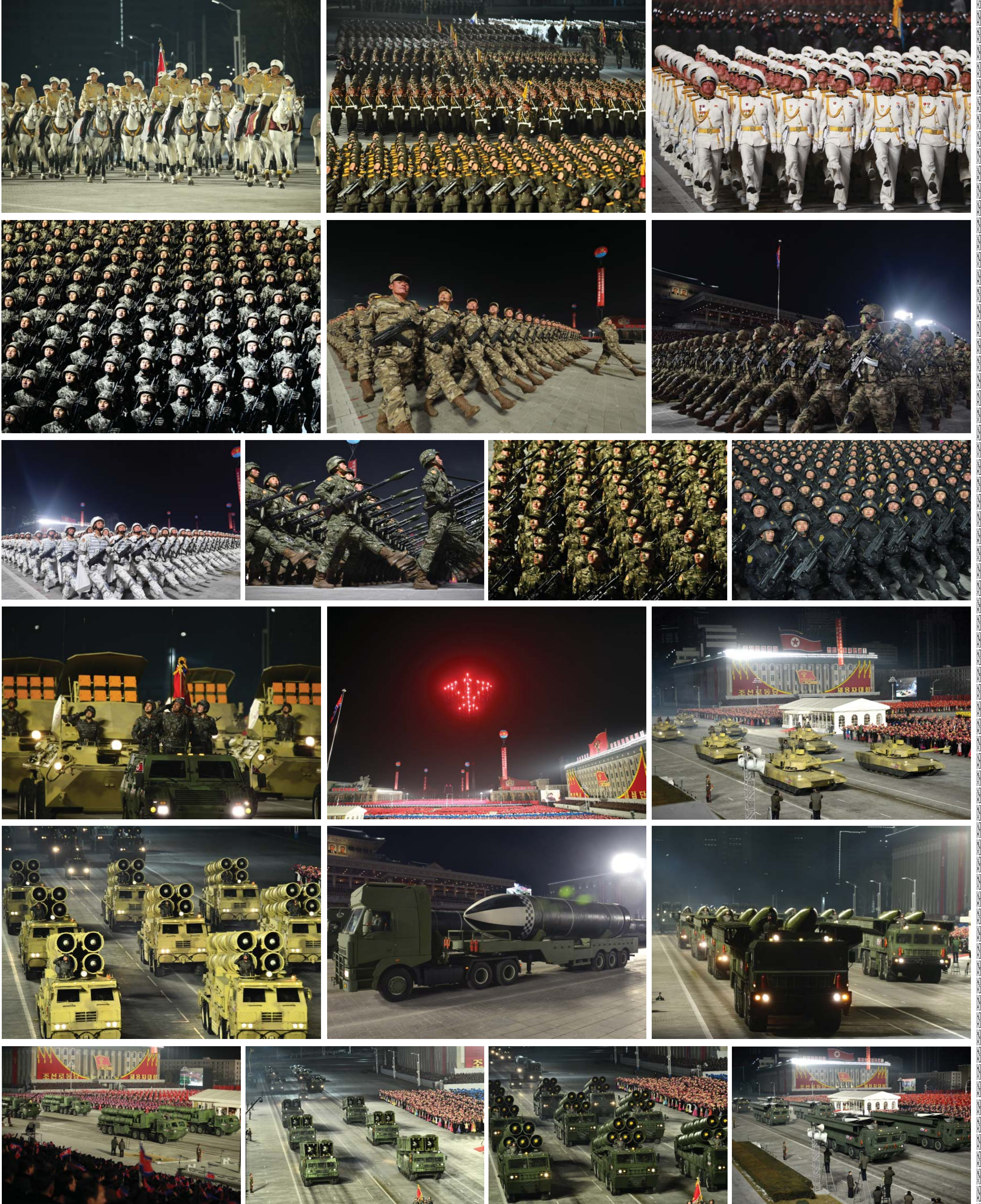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손을 드시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혁명강군의 힘,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힘이야말로 일심단결의 원천이며 이 불가항력이 있어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를 온 세상에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전당, 전민, 전군을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혁명적대진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 성대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식에 참석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여 축 포 발 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참가자들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



원수님따라 이 세상 끝까지

새해벽두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공화국 전체 인민들의 크나큰 기대와 열망속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높이 추대할 역사적사건은 온 나라를 크나큰 기쁨과 환희, 감격에 설레게 하고있다.

《대회장에 올린 우렁찬 환호성은 대표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터친 열광의 환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고 영광이다. 정말 힘이 솟고 크나큰 행복에 눈곱이 젖어든다.》

기쁨과 환희에 젖은 공화국인민들의 목소리는 이 땅의 어디에서나 울려나오고 있다.

누군들 심장이 높뛰지 않으랴. 기쁨과 환희를 터치지 않을 수 있랴.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수행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 사변이 아닐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품모를 지니시고 공화국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탁월한 령도자이며 존엄높은 공화국과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선로동당을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고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도록 이끄시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재난을 당한 인민들생각으로 잠 못 이루시며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고도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을 돌아보시던 그날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을 바라보고있을것이고 우리 당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릴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혼순간이라도 락심하게하거나 생활상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이렇듯 인민을 위한 교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인민사랑의 길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은 더욱 뚜렷해지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당풍으로 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탁월한 령도로 짧은 역사적기간에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공화국의 제일가는 국력인 일심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나라의 군력은 백방으로 강화되었다.

주체적인 군사상과 평할한 군령도로 공화국무력을 최정예강군으로 비상히 강화하시고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화선길을

앞장에서 헤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우에서 불과 몇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력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이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다.

현대화된 일터들에서 울리는 종산의 동음, 이 땅의 가는 곳마다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는 날로 장성강화되는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과 높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의 문명수준을 엿볼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떤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발전과 번영을 안아오는 강력한 보검인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도록 하시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나라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 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공장, 기업소를 찾으시어서는 자강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묘술과 방도도 가르쳐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어 그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나가기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도 안겨주시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그처럼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명제품, 명상품들이 늘어나고있으며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창

안도입되어 나라의 경제가 침체와 담보를 모르고 비약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었다.

인민을 위한 고생, 인민을 위한 창조를 더없는 락으로, 혁명하는 것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령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적인 령도의 길우에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별천지들이 솟아났다.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양덕은천문화휴양지와 미림승마구락부 등 이 땅에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서 넘쳐나는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가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먼지가 일고 비물에 진창이 된 건설장들과 물고기비린내가 짙 들어찬 동해의 포구들에도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던 불멸의 화폭들, 인민들이 리용할 마식령스키장의 삭도에도, 시운전상태에 있는 려명거리 70층 초고층아파트의 승강기에다 남먼저 오르신 사연들...

감격의 눈물, 뜨거운 심장이 없이 더듬을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이야기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 나날속에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은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시기 전에 살뜰하고 정깊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더욱 친근하게 새겨졌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기도 그 모든 성과를 인민들에게 돌려시며 위대한 인민, 고마운 인민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한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공화국의 앞길에는 더욱 밝은 빛이 뿌려지게 되었다.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억센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원수님따라 이 세상 끝까지!

이것이 이 땅, 이 하늘아래에 차넘치는 민심의 용융한 대하이다.

이런 불같은 총정의 일념을 안고 공화국인민들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와 기적들을 이룩할것이다.

송 정 수

크나큰 긍지, 불같은 맹세

끝없는 영광, 더없는 행복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는 보도에 접한 우리 조국 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안의 전체 일군들은 지금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현시대의 으뜸가는 정치가이시고 불세출의 위인이다.

그이를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기적과 전변을 안아왔고 나라의 존엄과 국력은 최대로 떨쳐지고있다.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찬란한 미래이다.

세계의 자자와 정의, 평화를 수호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경사중의 경사가 아닐수 없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성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 유 성

일편단심 그이만을

새해벽두부터 온 나라에 기쁨과 환희, 감격의 파도가 세차게 일고있다.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을 경건히 축원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뜻깊은 친필서한을 새해의 첫아침에 받아안은 우리들에게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일제나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며 인민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펼쳐주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화력발전전력합기업소 직장장 김 철 국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을 꽃피워

지난 수년간의 격동적인 나날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새겨안은것은 과연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영예,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도, 자연재해를 일고 한지에 나앉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인민들에게 돌려시며 위대한 인민, 고마운 인민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 원수님이다.

이렇듯 위대한 아버비를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상최대의 행복이며 영광이 아닐수 없다.

나는 수도건설부문에서 일하는 한 성원으로서는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을 꽃피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업을 거어이 관철하는데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수도건설위원회 부원 김 철 수

